

‘버스 타고 나주 한바퀴’, 나주시 시티투어 4년 만에 재개



매주 주말 버스 타고 나주시 대표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나주시 시티투어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나주시 시티투어를 오는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주 토 정기코스, 둘째·넷째 일요일 ‘힐링’, ‘포토스팟’ 코스 11월 12일까지...성인 기준 4000원·문화해설사 동반 탐방

나주시 시티투어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나주의 주요 역사문화, 생태경관 명소를 하루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매주 토요일 역사문화체험 중심의 정기코스(정기코스(역사문화체험)·매주 토요일 테마코스(힐링, 포토스팟)·둘째, 넷째 일요일 운영)와 둘째 주 일요일 ‘힐링코스’, 넷째 주 일요일 ‘포토스팟 코스’로 테마별 여행 노선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 5분까지로 모든 코스가 동일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이용 편의를 위해 전체 코스 출발점을 기존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에서 KTX나주역으로 변경했다. 매주 토요일 정기코스는 KTX나주역에서 출발해 ‘국립나주박물관-나주읍성권-황포돛배-천연염색박물관-북암리교분전시관-KTX나주역’ 순으로 운행한다. 생태 경관과 치유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춘 힐링코스는 ‘영산포철도공원-황포돛배-중식-산림자원연구소-도래한옥마을-불회사’를 경유한다. 포토스팟 코스는 ‘빛가람전망대-산림자원연구소-중식-나주읍성권-영산포철도공원-우습재-느리전망대’ 순으로 사전 찍기 좋은 관광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다.

버스 탑승료는 성인기준 4000원이며 경로·아동·국가유공자 등은 50%할인(2000원)된다. 사전 5명 이상 예약 시 운행하며 사전 예약이 원칙이지만 잔여 좌석이 있으면 현장에서 현금결제라도 탑승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부터 KTX연계를 통해 나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나주의 유구한 역사 문화, 천혜 생태 관광자원을 실속 있고 효율적으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여행 코스를 편성했다”며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여행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시티투어를 통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나주의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시 시티투어 사전 예약은 ‘나라고속관광’(www.narabus.co.kr)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여행 노선 등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문화관광 누리집 ‘시티투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담양군, 가족과 함께하는 ‘창의력 쑥쑥 미술체험’ 진행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0일 드림스타트 가족 61명을 대상으로 담빛청소년문화의집에서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드는 ‘창의력 쑥쑥 미술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캔버스 위에 진주, 파츠, 사진, 식물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정서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체험에 참여한 부모님은 “아이가 생각지도 못했던 풀을 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깜짝 놀랐고 재미있게 작품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색다른 미술학습의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

재해취약지 찾아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점검



구례군은 5월 22일과, 23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관내 재해취약지역을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재해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유영광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은 재해취약지역인 하천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교량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에게 재해 대비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례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구례취수장 및 섬진강정수장 재해복구사업, 지천소하천 정비 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실명을 듣고 근로자 안전관리와 함께 여름철 우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유영광 부군수는 “여름철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도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역사박물관 건립 위한 유물 수집에 주력

곡성군이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유물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덕양서원 강당에서 군민, 유물 소장가, 문중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간담회를 통해 곡성역사박물관 유물 수집을 위한 방안과 개인, 문중, 문화기관 등 협업을 통한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유물 집수는 개관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기증 희망자는 먼저 곡성군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팀에 기증 또는 기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우편(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문화체육과) 또는 이메일, 팩스 중에서도 선택하면 된다. 서식은 곡성군 공식 홈페이지의 열린군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앞으로도 유물 수집에 대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숨겨진 유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에 대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화순군, 무인 악취측정기로 24시간 악취관리

2022년 4대 설치에 이어 2023년 2대 추가 설치

화순군은 악취민원이 상승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악취도 측정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동식 무인 악취측정기를 작년 4대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춘양면 축산농가 주변에 추가로 2대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악취측정기 추가 설치로 화순군에는 퇴비공장 2개소, 양돈농가 4개소 등 총 6대의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무인악취측정기는 복합악취센서로 실시간 악취측정이 가능하고, 악취 임계치 이상 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람 기능 및 무선 통신을 이용한 웹/앱 통합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즉시 악취 저감을 위한 조치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무인 악취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의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군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